

■보성서 열린 '동호인 역도대회' 화제

흘쭉이·똥똥이·배 나온 선수...

“폼은 서툴지만 마음만은 선수급”

역도전문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대회장에 동호인들이 떼었다.

지난 17일 제58회 전국총체남자역도경기대회...

이전까지 전문 선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분위기와는 달리 동호인 경기는 대기 중인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얘기도 나누고, 간간히 큰 웃음소리가 체육관을 울리는 등 대회 무대에 놓인 40kg의 바벨만큼이나 가벼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전자들의 체형이 '흘쭉이', '똥똥이' 등 다양했다. 동호인 대회 방식은 체급별 경기가 아닌 자유체급(?)으로 체중에 관계없이 가장 무겁게 드는 선수에게 우승이 돌아가기에 출전자들의 체형은 말랐거나 근육형 등 들쭉날쭉했다. 심지어 약간 배 나온 선수도 있었다.

동호인들은 바벨을 들고난 후 성공 부자가 울리면 전문 선수들과는 약간 다른 세리머니를 표현했다. 양손 엄지와 검지를 붙여 사랑표시를 하는 가 하면, 동계를 립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의 두 손 모아 총 쏘는 자세를 패러디하거나, 제자리에



지난 17일 보성다체육관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총체남자역도경기대회 동호인 경기 용상에서 광주대표 명정운 선수가 75kg에 도전해 성공하고 있다. <전남역도연맹 제공>

성공 세리머니 다양각색

체육관에 웃음소리 가득

서 팔뚝팔뚝 뛰는 등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됐다. 이밖에 자신의 팔 이름을 크게 부른 경우도 있었다. 비록 바벨 무게는 전문 선수들 보다 턱없이 낮았지만 경기장에 들어서면 표정만큼은 전문 선수들처럼 진지했다.

대회 진행은 비교적 순탄하고 빨랐다. 전문 선수들 대회와 달리 심판들은 비교적 관대한(?) 판정을 내렸다. 바벨을 들었을 때 팔이 약간 굽혀지는 것은 일반대회에서는 용납 안되지만 동호인 대회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됐다.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동호인들이 전문선수들처럼 완벽한 자세를 갖추기 어렵고, 특히 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는게 우선이기 때문에 약간 팔이 구부러진 경우는 통과 시켰다"면서 "하지만 하체가 흔들리거나 인상에서 잠시 쉬었다 울리는 경우 등

은 불합격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선수들과 똑같은 모습도 있었다. 탄산마그네슘을 손에 바르고 입장하거나, 퇴장시 심판·관중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은 똑같았다. 경기 중 신경전도 있었다. 인상 90kg대에 들어서면서 김용식(서울)·송인욱(경기) 선수가 서로 무게를 달리하며 기존 선수를 못지않은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 대표 김덕용(직장인·41)·명정운(대학생·24) 씨 2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대회 최고령 선수인 김덕용씨는 "막상 경기장에 올라서보니 관중들이 모두 나를 지켜보고 있기에 많이 떨렸다"면서 "나보다 젊은 선수들 보다는 뒤졌지만 연습해 오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들어 기쁘다"고 출전 소감을 밝혔다. 명정운씨는 "나혼자 연습해오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바벨을 든다는 것이 약간 흥분했다"면서 "성공 판정이 내리고 박수를 받으니 너무 기쁘다"며 경기 후에도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경기장에 오른 순간을 설명했다.

지난 3월 광택서 열린 여자총체대회 이후 두 번째인 이번 동호인 대회는 전국에서 14명이 참가해 인상·용상을 통한 합계로만 승부를 가렸다.

동호인 대회를 처음으로 도입한 김용철 대한역도연맹 생활체육이사(전남역도연맹 부회장 겸임)는 "역도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1천여명에 달하는 만큼 이제는 역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역도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여자대회도 추진하고, 실외에서도 경기를 치르는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보성=서승원기자 swseo@

광주 '전북 징크스'에 또 눈물

프로축구 K-리그 8R...전북 에닝요에 결승골 0-1 패 전남도 대전 원정경기서 0-1로 저 3연패 부진 빠져

광주 상무가 전북 현대 '무패 행진'의 제물이 됐다.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1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와의 8라운드 경기에서 에닝요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0-1로 무릎을 꿇었다.

지난주 전남을 상대로 7년만에 광양 무승 징크스를 깬 상무는 9경기 동안 계속된 '전북 무승 징크스' 계기에 도전했지만 득점포 불발로 실패에 그쳤다. 반면 전북은 이날 승리로 올 시즌 7경기에서 4승3무를 수확하며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경기 시작과 함께 전북의 공세가 시작됐다. 전북의 공격을 주도 하고 있는 이동국의 움직임이 상무의 수비라인을 위협했다. 광주는 지난 7라운드 북귀전에서 선제골을 기록한 최성국이 이에 맞서 기싸움을 벌였다.

전반 15분 아쉬운 수비가 나왔다. 수비수 장현규가 골키퍼 김지혁에게 백헤딩 하려던 공이 전북 에닝요의 발에 걸렸다. 공을 낚아챈 에닝요가 침착하게 골문을 겨냥해 자신의 시즌 5번째 골을 기록했다.

선제골을 내준 상무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지만 골 결정력이 아쉬웠다.

전반 25분 최원권의 크로스를 받은 최성국이 슈팅을 날렸지만 상대 골키퍼 권순태 정면으로 향하는 등 여러차례 아쉬운 장면이 연출됐다.

후반 숨을 고른 상무가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골문 앞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하면서 전북을 위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격의 핵심 최성국도 상대 수비수에게 발이 묶이면서 김정우와 최원권이 공격을 주도했다.

후반 27분 천근같은 동점기회가 찾아왔다. 주장 최원권이 김동현이 올려준 패스를 받아 골 포스트 왼쪽에서 골키퍼 권순태와 1대1로 맞섰다. 하지만 최원권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권순태가 달려나오면서 오른발 슈팅을 막아냈다.

이후 상무는 전북의 견고한 수비 벽을 넘지 못하고 0-1로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다. 2승3무3패로 9위를 달리고 있다.

앞선 17일 대전으로 원정경기에 나선 전남 드래곤즈도 0-1로 대전의 시즌 첫 승의 제물이 되면서 3연패에 빠졌다. 전남은 1승2무4패로 13위에 머물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임정현, 경보 50km 한국신

3주만에 44초 단축

경보 유망주 임정현(23·삼삼전자)이 육상 최장거리 종목인 50km 경보에서 한국기록을 갈아치웠다.

임정현은 18일 일본 와지마에서 열린 제94회 일본육상선수권대회 남자 50km 경보 레이스에서 3시간55분56초에 골인, 지난달 28일 선배 김동영

(30·삼삼전자)이 슬로바키아 두딘스경보대회에서 세운 종전 한국기록(3시간56분40초)을 3주 만에 44초 앞당겼다.

이번 대회는 일본 선수들의 아시아권 임 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렸고 임정현은 초청선수로 출전했다.

세계랭킹 4위의 일본 경보 에이스 야마자키 유키가 3시간46분대로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광주 운남중 사이클팀 창단

광주 운남중(교장 전정영)은 지난 17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 남자 사이클팀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창단식에는 전정영 교장을 비롯, 이기우 광주시교육청 서부교육국장, 노병구 광주사이클연맹 회장 등 교육청·연맹 관계자와 재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장재원 감독, 김영복 코치가 이끄는 사이클팀은 윤진규·정찬우·김준선·정진호·김규성·이태운·김준형 등 선수 7명으로 구성됐다.

광주 운남중(교장 전정영)은 지난 17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 남자 사이클팀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창단식에는 전정영 교장을 비롯, 이기우 광주시교육청 서부교육국장, 노병구 광주사이클연맹 회장 등 교육청·연맹 관계자와 재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장재원 감독, 김영복 코치가 이끄는 사이클팀은 윤진규·정찬우·김준선·정진호·김규성·이태운·김준형 등 선수 7명으로 구성됐다. <연합중 제공>

KT&G 5년만에 정상

女프로배구 챔피언...몬타노 MVP

KT&G 아리엘즈가 프로배구 여자부 정상 5년 만에 탈환했다.

KT&G는 지난 17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끝난 NH 농협 2009-2010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 6차전에서 블로킹의 절대 우세(14-3)를 앞세워 현대건설을 3-0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2패로 우승을 확정했다.

프로 원년이던 2005년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KT&G는 5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일궈내며 흥국생명(3회)에 이어 여자부에서 두 번째로 많이 우승한 팀으로 올라섰다.

KT&G 몬타노는 기자단 최우수선수 투표에서 총 37표 중 29표를 휩쓸어 MVP로 뽑혀 상금 500만원도 받았다. /연합뉴스

장선재·조호성 피사이크 3관왕

한국 사이클의 기동 장선재(26·대한지적공사)와 조호성(36·서울시청)이 제30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3관왕에 올랐다.

장선재는 18일(한국시각) 두바이에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개인추발, 메디슨, 단체 추발 등 3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장선재는 개인추발 4km에서 4분44초50으로 가장 먼저 골인한 데 이어 단체 추발(4분24초00)에서 동료와 함께 1위에 올랐다.

아울러 조호성은 한국 사이클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메달 종목으로 노리는 옴니움을 비롯해 포인트와 단체 추발에서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영 / 화 / 안 / 내

영화가 좋아진다

메가박스

Table with 2 columns: Rank and Movie Title. Movies include 타이탄, 반가운 살인자, 타이탄, 블라인드사이드, (3D)타이탄, 바운티헌터, 일라이, 크레이지/육혈포 강도단, 프로포즈데이, 베스트셀러.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관외곽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판 www.megabox.co.kr

콜롬버스시네마

Table with 2 columns: Rank and Movie Title. Movies include 반가운 살인자, 육혈포강도단, 프로포즈데이, 일라이, 작은연못, (3D)타이탄, 바운티헌터, 베스트셀러, 타이탄.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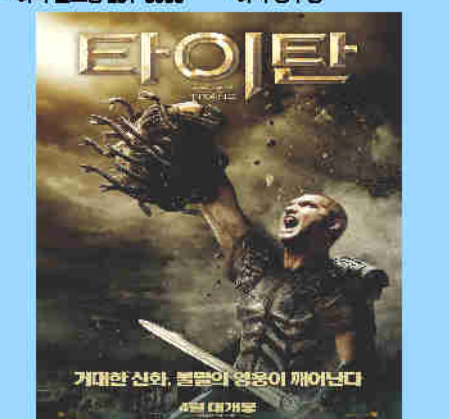


1588-7941 상무형원점 개봉-(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Table with 2 columns: Rank and Movie Title. Movies include 레이징 피닉스, 그린 존, 솔로몬 케인, 의형제, 비밀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타이탄, 육혈포 강도단, 폭풍전야.

• 5000대 범용 주차권(3시간/부류) • 3Dx2D 매일 상영



고객사랑 고객센터 www.hamichema.co.kr / 1586-9120

씨너스전대

Table with 2 columns: Rank and Movie Title. Movies include 일라이, 베스트셀러, 타이탄, 크레이지/프로포즈데이, 육혈포 강도단, 반가운 살인자, 블라인드사이드, (3D)타이탄.

씨너스전대 4월 1일 타이탄 3D(4K) 상영!!



씨너스전대 4월 1일 타이탄 3D(4K) 상영!!

제일시네마

Table with 2 columns: Rank and Movie Title. Movies include 타이탄, 베스트셀러, 작은연못, 일라이, 반가운 살인자, 집나온남자들, 육혈포 강도단.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새로운 기쁨 www.primuschema.com/www.jellicinema.co.kr